2200여 장병들 불제자로 거듭나다

조계종 군종교구,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돈관 스님 전계대화상 참여
"계율, 자유로운 삶의 약속"
군포교 기금 3000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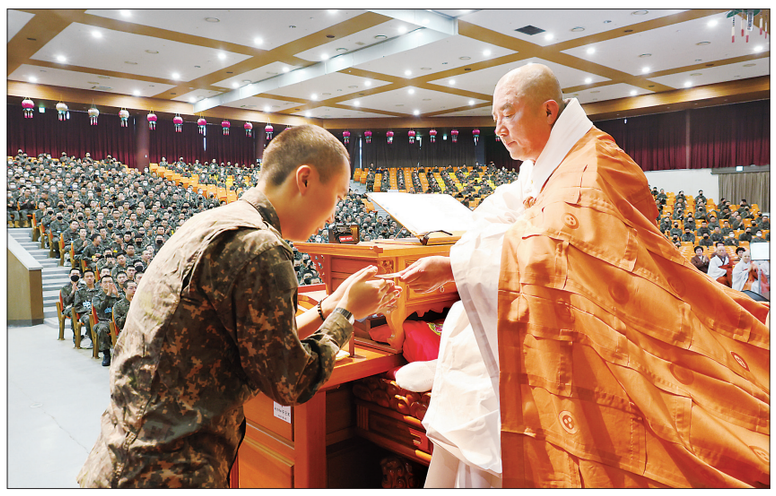
유재상 충청지사장

2200여 명의 군장병이 오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거듭났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5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관에서 훈련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을 전계대화상으로, 제정 스님(동국대 서울 정각원장)과 법천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을 증명 법사로 모신 가운데 진행됐다.

수계법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연비, 오계 수계, 발원문 낭독, 법명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법회에 참석한 2200여 명의 훈련병들은 참회 진언으로 과거의 업장을 씻고 오계를 지킬 것을 서원했다. 동국대 석림회 동문 스님들과 전북 익산 군포교 지원팀이 연비 의식 등을 지원하며 행사에 힘을 보탰다.

전계대화상으로 법석에 오른 돈관 스님은 지계(持戒)의 중요성을 설했다. 스님은 "계율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완전한 삶을 향한 약속이며, 주인공으로서 지켜야 할 다짐"이라며 "이 약속은 군생활에서 나침반이자 지침이며 살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을 이날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에게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하며 훈련병들의 신행을 격려하기도 했다.


전계대화상 돈관 스님이 수계 대표 훈련병에게 수계증을 전달하고 있다.

법회 후에는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축하공연을 펼쳤고, 부처님오신날과 생일이 겹친 훈련병들을 위한 깜짝 생일 축하 시간도 마련됐다.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건학위원회 박기련 사무총장과 지정학 사무처장,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과 김용현 교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일주문 상량

5월 12일 상량식 봉행
"해탈로 나아가는 門"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춘 스님)이 5월 12일 대법당과 경내 일원에서 일주문 상량식과 화합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지원장 혜춘 스님을 비롯해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혜밀 스님, 최종열 중부경남지원 신도회장, 정상윤 자문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상량된 일주문은 전통 다포양식으로, 기둥뿐 아니라 벽면과 처마 밑에도 공포(포작)가 정교하게 배치되는 한국 전통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하단이 좁고 상단이 넓은 배흘림기둥과 활주(보조기둥), 둥글게 말린 포작 장식 등은 구조적 안정성과 함께 장엄미를 더하며 도량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5월 12일 일주문 상량식을 봉행했다.

건물 전체는 높이 약 7m, 지붕 폭 3.5m, 기둥 둘레 85cm 규모이며 대지면적 5,251㎡, 건축면적 1014.46㎡, 연면적 1441.21㎡로 설계됐다. 상량보에는 대행 선사의 법문 중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걸림이 없어라"는 말씀이 새겨졌으며, 불사도감은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맡았다.

중부경남지원장 혜춘 스님은 "일주문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중생의 발원이 담긴 도량의 문이자, 오고 가는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첫 걸음의 문"이라며 "이 도량을 통해 후대들 또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의 길로 나아가길 서원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대행 큰스님의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걸림이 없어라'는 말씀처럼, 이 도량이 누구에게나 열린 수행의 장이 되어 모든 이들이 마음을 내고 서원을 세우며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 일주문 불사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수행의 장을 마련하고 도량의 정체성을 세우는 깊은 불사"라며 "그 안에 담긴 문양과 상징 하나하나가 수행자들의 마음을 다잡고 서원을 일으키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꽃잎이 흩날려 또 다른 꽃을 피워내듯, 이 도량에서 일으킨 공부와 서원이 서로 이어지며 새로운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의 원력을 더욱 단단히 세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홍제중 학생들 '주인공 마음의 힘' 배우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8~9일 산사문화체험
장학금 300만원 전달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5월 8~9일 경내에서 밀양 홍제중학교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산사문화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산사문화체험은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항상 푸르게 살 수 있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중심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

첫째 날은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의 인사말과 함께 '주인공 마음열기'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어 김민선 강사의 '주인공 마음의 힘' 강의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해수관음보살 부처님 앞에서 촛불재가 열렸다. 학생들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뜻깊은 체험을 했다.

이튿날은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해 통영의 자연 속에서 해맞이 산책을 했다. 참가자들은 햇살을 받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팀별 주인공 미션 프로그램'으로 협동과 소통, 내면의 자각을 함께 나눴다.

통영지원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뜻을 담아 홍제중학교에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혜연 스님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마음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안 각원사는 5월 5일 '제16회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시원하시죠"…각원사 대불 목욕 의식

5월 5일 개산 49주년 맞아
'15m 아미타 부처님' 목욕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가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과 개산 49주년을 기념해 청동대불을 씻겨드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5월 5일 각원사 청동대불 앞에서 열린 '제16회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에는 주지 대원 스님과 성기만 신도회장, 김태훈 충청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대불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고 김영조 거사의 부인 정정자 여사가 참석해 축사하고 직접 목욕 의식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은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리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씻는 일이며, 몸과 마음의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이라고 말했다.

정정자 여사는 축사에서 "50년 전 판잣집 같은 작은 방에 부처님만 계셨던 곳이 이렇게 큰 가람이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남편이 대불 불사를 주도했으나 생전에는 이를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해 오늘에서야 그 뜻을 대신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각원사 아미타 대불은 높이 15m, 둘레 30m, 총 60t 규모의 청동대불로 1977년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조성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신흥사, 무산 대종사 원적 7주기 다례재

5월 9일 경내 설법전서



한글 선시(禪詩)의 선구자이자 설악산문을 부흥시킨 선지식인 무산 대종사의 수행정신과 사상을 기리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5월 9일 경내 설법전에서 설악당 무산 대종사(1932~2018) 원적 7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명예원로의원 암도 스님, 원로의원 도후·법등·원행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과 무산 대종사의 상좌 문석·득우·일원·삼조·일도 스님, 이병선 속초시장, 김시성 강원도의회의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용대리 만해마을 주민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셨던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영랑호 불교센터 건립, 문학관 조성 등 원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봉화산 정토원, '수광전 원불' 불사 시작

신도 참여형 신행



김해 봉화산 정토원(주지 등명 스님)이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수광전 원불 조성 불사'에 본격 착수했다.〈사진〉

5월 5일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봉화산 정토원은 원불 조성 불사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신도들에게 공식 발표했다. 수광전에 봉안될 원불은 김해시도예가협회 소속 김정태 작가가 제작을 맡았으며, 불자들이 각자 서원을 담아 봉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불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신을 상징한다.

선건 봉화산 정토원 이사장은 "불자들의 발원이 모여 수광전이 자비와 깨달음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육군 35사단 위문

(사)붓다 봉사단과 간식 제공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사)붓다는 5월 11일 육군 35사단 호국충경사 법당에서 특별 위문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윤금상 마이산 탑사 전국신도회장, 이재현 (사)붓다 봉사단장과 35사단 장병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300인분의 음료를, (사)붓다 봉사단은 300인분의 스님 떡볶이와 닭강정, 사탕수수 주스를 장병들에게 제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소원정사, 학대 피해 아동에 선물

5월 12일, 보육시설 5곳에



광주 나눔도량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소원정사는 5월 12일 '안아줄게 도담도담기금'으로 마련한 선물을 광주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광주 동구 지역의 가정형 보육시설(그룹홈) 5곳에 전달했다.〈사진〉 해당 기금은 도계 스님의 사비로 조성된 것이다.

도계 스님은 "우리 아이들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선사, 제5기 입문과정 수료·수계식

5월 11일, 51명 수료



서울 도선사 불교대학(학장 남일 스님)이 5월 11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불교입문과정 제5기 수료 및 수계식'을 진행했다.〈사진〉

기본교육을 이수한 수료생 총 51명(수요반 20명, 토요반 31명)은 이날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을 계사로 삼귀의 오계를 수지했다. 태원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지혜와 자비를 찾는 길을 제시해 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불교대학장 남일 스님은 "오계를 지키는 것은 몸과 정신을 건강히 하는 길"이라며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